

光州日科 流





kwangju.co.kr 음력 9월 22일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359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한강이 '藝鄕'에 쓴 단편소설 '푸른 山' 공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지난 1994년 '예향' 7월호에 발표 창간 40주년 기념…30년 전 소설 광주일보 3회 걸쳐 연재

한국 작가로 첫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초기 소설 '푸른 山'이 광주일보 문화전문매거진 '예항' (1994년 7월호·통 권 118호)에 수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강의 초기 작품 수록이 '예향' 창간 40주년을 맞아 확인 이 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배가되고 있다. 〈소설 내용 2면〉

'예향'은 그동안 호남의 문화와 예술을 기록하고 지역과 세 계를 잇는 글로벌 매거진으로서 책무를 수행해왔다. 역량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호남의 문화와 예술이 꽃 피울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왔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가나 중앙 일간지를 통해 등단한 지역 출신 작가들의 책 발간 소식 을 비롯해 다양한 문학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던 것이

1994년 7월호 '예향'에 수록된 단편소설 '푸른 山'은 248쪽 부터 259쪽까지 12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다. 당시 삽화는 김진 수 화백이 그린 것으로 모두 3개의 이미지로 돼 있다. 청년 시 절의 한강 작가 사진도 볼 수 있다. 24세의 앳된 얼굴은 우수에 찬 모습이며 무엇인가를 사유하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다.

원고지(현재 기준) 120매에 이르는 소설은 한강 작가 작품 의 일반적인 특질, 즉 "시적인 산문"을 비롯해 서정적 문체, 섬 세한 감수성 등이 정치하게 녹아 있다. 또한 작가의 이력에는

'1970년 전남 광주 출생, 93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업,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붉은 닻'으로 당선' 등의 내용이 소

'예향'에 게재된 '푸른 山'은 한강 작가의 초기 작품은 물론 향후 창작된 작품 세계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단초를 준다는 점 에서 의미가 깊다. 문학연구자들이 특정 작가 연구를 할 때 가 장 관심을 갖고 보는 작품이 데뷔 작품과 초기 작품이다. 이후 문학세계가 다소 변화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작가들의 작품 세 계는 초기 작품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언급한 대로 한강 작가는 지난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붉은 닻', 1월 4일자)를 통해 문단에 나왔다.

한강 작가는 '뽑히고 나서'라는 당선 소감에서 "무릎이 꺾인 다 해도 그 꺾이는 무릎으로 다시 한 발자국 내딛는 용기를 이 제부터 배워야 하리라. 세월의 뜻을 가르쳐주시는 부모님, 주 저앉고 싶던 순간마다 집요하게 등단을 격려하게 해 주곤 하던 오라버님, 마감시간에 쫓겨 자정 가까운 밤거리로 나설 때 기 꺼이 동행해주었던 동생, 나보다 놀라며 기뻐할 친구들의 얼굴 이 차례로 생각난다"고 했다.

예향에 게재된 '푸른 山'은 영세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20대 중반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야근과 일요일 근무가 빈번



한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며 겨우 생 계를 꾸려가는 영선이라는 여성의 삶을 그렸다. 영선은 격무와 적은 월급, 시력이 나빠지는 증세에 시달 리다 마침내 사표를 낸다.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서 울에 올라와 야간대학을 다니며 일 을 해야 했던 여성은 그 시절 남도 출 신 여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야간열차를 타고 가다 영선은 고향

이 '장성'이라는 군인을 알게 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내용 이다. 행선지가 영등포역에서부터 열차의 마지막 종점까지 가는 것으로 보아 영선의 고향은 광주나 목포, 여수로 추정된다.

소설 전편에 흐르는 정서는 쓸쓸함과 비루한 현실, 생의 비 의와 아픔, 남도의 정서 등이다. 한강 작가의 다수의 작품에서 그러한 특질이 발견되는데, 유독 초기 작품에서 강하게 드러난 다.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와 같은 작품은 삶과 죽음 의 본질, 폭력의 원인 등을 섬세한 문체로 그려 독자들에게 강 한 울림을 선사했다.

부친인 한승원 소설가는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강(한강)이의 소설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섬세합 니다. 여린 상처 입은 영혼의 실존이랄까 그것을 실감있게 묘 사하지요. 그 흉내는 우리 같은 앞선 세대 작가들은 결코 흉내 를 내지 못하죠"라고 말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2차전 경기에서 8 대 3으로 승리한 KIA 선수들이 하이파이브하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KIA, 파죽의 2연승… 한국시리즈 V12 '성큼'

김도영 홈런포 … 삼성에 8-3 승리



KIA 타이거즈가 '1일 2승'을 낚으면서 'V12'를 향해 내달렸 〈관련기사 3·18면〉

KIA는 23일 광주 기아 챔피 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

즈와의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 1·2차전에서 연 달아 승리를 거뒀다.

'가을비'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1차전에서는 5-1 역전승을 연출했고, 이어 진행된 2차전에서는 김도 영의 홈런 포함 장단 10안타를 터트리며 8-3, 연승 에 성공했다.

0-1로 뒤진 6회초 무사 1·2루에서 시작한 서스 펜디드게임 1차전에서는 전상현이 출격해 실점 없 이 3개의 아웃카운트를 처리하고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다. KIA는 김선빈의 볼넷으로 시작한 7회말 투수 임창민의 연속 폭투로 동점에 이어 역전에 성 공한 뒤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의 연속 안타로 순식 간에 4-1을 만들었다.

전상현 카드로 흐름을 바꾼 KIA는 곽도규와 정 해영으로 삼성의 타선 추격을 막고 3일의 기다림 끝에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긴장감을 덜어낸 KIA 방망이가 2차전 시작과 함 께 폭발했다. 1회초 톱타자 박찬호가 볼넷으로 출루 한 뒤 소크라테스가 우전 안타로 분위기를 이었다.

포수 강민호가 2루 견제를 위해 던진 공이 뒤로 빠지면서 무사 2·3루, 김도영의 2루 땅볼 때 3루 주 자 박찬호가 홈에 들어오면서 선취점을 올렸다.

최형우와 나성범의 연속 안타에 이어 김선빈의 2 루타가 연달아 터졌다. 이우성까지 안타 행진에 동참 하면서 KIA는 1회에만 5점을 뽑아냈다. 2회말에는

김도영이 우월 솔로포를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의 노련함이 빛났다. 양현 종은 6회 1사까지 8개의 안타는 허용했지만 2실점

(1자책점)으로 마운드 싸움을 벌여줬다. 안방에서 열린 1,2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KIA는 24일 휴식일을 보낸 뒤 오는 25일과 26일, 삼성의 홈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가서 3.4차전

한편 이날 챔피언스필드에는 1만9300명이 입장 하면서 포스트시즌 18경기 연속 매진이 기록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시리즈 KIA-삼성전 '인터넷 광주일보'에 자세히 보도합니다



